

# 古新羅工藝의

## 透作무늬에 대하여

孟 仁 在

### 一、前 言

古新羅期的 金屬工藝 透彫에는 크게 보아 動物文系와 植物文系가 있다고 생각된다. 動物文系는 龍·禽鳥마위를 寫實的으로 나타내거나 그 무늬가 아주 변하여 다른 요소 즉 구름무늬나 唐草文같은 것과 結合하는 모습을 띠며 대개 冠帽, 腰帶佩飾, 馬鞍具 등에서 볼 수 있다. 植物文系는 간단한 忍冬文이나 禽鳥무늬의 背景으로서의 唐草무늬 등이며 대개 鎊帶나 杏葉, 鞍橋飾 등에서 볼 수 있는 무늬이다.

이들 무늬들은 透彫된 工藝지만 그 바탕이 筆寫, 描寫的인 것이기 때문에 古墳의 그림이라던가 漆器 등의 彩畫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素材와 樣式的 共通性은 必然的인 관계이다.

素材·樣式的 傳播로 본다면 隣接國이나 隔遠의 他國이 모두 주고 받는 位置에 서게 되나 傳播, 受容에 따른 說明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알려진 資料에 의거해서만 그 本末關係를 짚어보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본다면 古新羅라는 地域은 바라컨너 日本을 제외하면 古代아시아 大陸의 東端이며 그러한 素材·樣式傳播의 最終點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淵源이 古代의 滿洲, 中國, 西域, 또는 內陸시베리아와 黑海沿岸에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짐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그것이 또 日本에까지 미치게 되어 東아시아 文化圈의 특색있는 一部를 形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古新羅의 透作무늬는 國際性이 매우 強한分野라고 할 수 있다.

古新羅의 몇몇 透飾무늬는 龍文의 便化에서 오는 龍頭와 雲氣文의 混合으로 構成되고 어떤 것은 物形에서 아주 脫化하여 이른바 怪雲文으로만 구성된 것도 있다. 金冠塚, 瑞鳳塚, 天馬塚出土 透飾들은 모두 그 범주에 들며 眞坡里 1號墳出土의 고무려 透彫金具, 高靈出土의 鞍具, 日本의 九州와 大阪地方에서 出土된 一部 冠帽, 鞍金具도 같은 類型에 속한다고 하겠다.

### 二、龍文과 脫化雲文

雲文은 처음에 動物무늬에서 物形自體가 便化되면서 과정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動物素材에 있어 그 頭角, 肢體, 後尾 등이 차츰 寫實的인 風을 벗어나면 그것은 점점 表象의 장식적 屬性으로 轉化하게 된다.

그러한 轉化의 모습은 戰國—漢代의 龍文과 그 몸체에서 延長 變化되는 四肢나 尾角의 紋樣化에서도 볼 수 있다.

戰國時代의 夔龍文銅鏡(도 1)을 보면 그 四肢와 尾部가 裝飾化되면서 마디가 생기고 轉曲이 加해져서 本來의 形狀이 지니는 形狀的次元을 넘어 그것이 되풀이 強調되므로 결과적으로는 圖案化된 장식무늬가 되고 있다. 이렇게 本來의 樣式에서 훨씬 많이 장식적 속성이 첨가되면 肢體각부의 區別이 不分明해지며 장식무늬로서도 難解한 것이 되나 한편 古代의 神聖한 動物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 모양의 崇嚴壯重한 것이 일 반적 경향이었다는 점도 想起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傾向은 三代의 銅器가 적절하게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龍의 모습이 점차 그 실제적인 속성을 잃고 蔓形化되는 過程은 前出戰國時代 銅鏡에서도 一例를 보았지만 같은 戰國時代의 漆耳杯에 보이

는渦雲化된草花蔓文(도 2)도저러한漢代雲氣文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龍무늬가보다脫化—便化된모양은이漢代漆器의그림에서구체적으로볼수있다.樂浪채협총出土의漆器에彩畵된龍무늬(도 3)는그머리부분만이寫實的으로그려지고목과몸체를비롯한모든부분은大小의C形무늬로연결되어있을뿐이다.그렇지만몸체와다리와 꼬리가구성면에서區別되지않고쿠도로便化하여머리와목의당연한屈曲을제외한다면모든C形무늬는雲氣무늬처럼보인다.全體의인운동감은매우奔放하고그한쪽에는진속력으로날으는새가안배되어있어神秘感和광활한空間感을느끼게한다.

樣式上 차이가 있고 시대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全的인 것은 아니라 할찌라도 이와 같은 轉化의 모습이 우리 三國時代의 무늬化된 龍文乃至



圖 1. 기룡문동경 部分 (戰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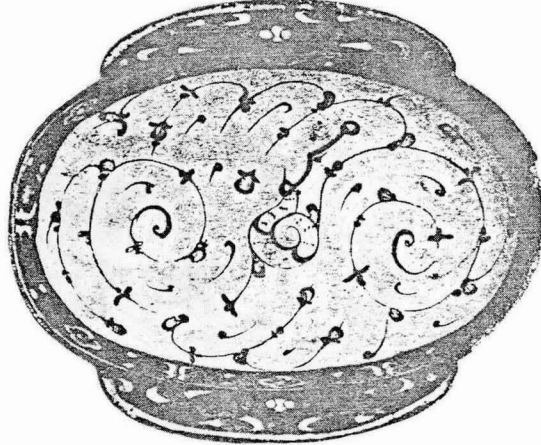


圖 2. 漆耳杯 (戰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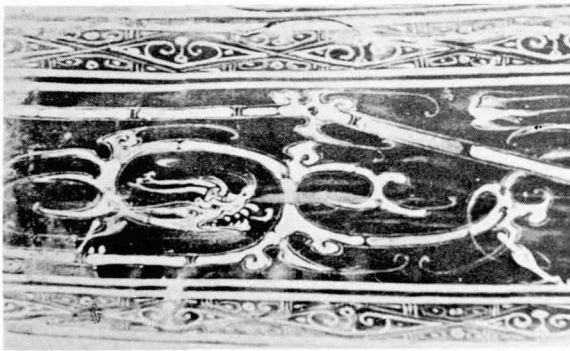


圖 3. 彩畵雲龍文 (樂浪채협총)

雲龍文의 便化와도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스키타이工藝에서樣式化된鹿頭(도 4)나鳥足(도 5)이實際運動의 경우보다매우複雜해지며一定形式으로美化되고또戰國時代의夔龍文역시그와같은實際以上の 훨씬 많은添加요소로서하나의典型을이룬점에서는그根本的인意匠觀의相通함을볼수있다.

漢代의流雲文에대하여梅原氏は「所謂流雲文의一類가西方의인맛을지닌다고는하나한편으로그것과는틀리는趣를지녀戰國時代에盛行한蟠螭文의흐름을이은것이머더욱거슬러나면周의Z字形虺龍文에이른다는것이前年來續出한古鏡文이나타내는事實에의해實證되기에 이르렀다」고하여流雲文이中國獨自의發生임을主張하였다.雲氣—怪雲—流雲文의祖形이動物的인 것에 있다는 것은戰國鏡의例로서본바와같다.

그러한動物을源流로하는怪雲文의實例는古新羅·伽倻의透飾文에서도볼수있으며아울러그脫化—便化의 모습도볼수가있다. 보다本格的인스타일의怪雲、流雲무늬는고구려의古墳壁畵에서 많이 볼수있으며소위雲文의表現이多樣하며그러한壁畵의바탕이古新羅의怪雲文樣式成立에도영향을미쳤다고생각된다.

天馬塚의金銅透彫鳥形佩飾(도 6)은부조무늬가몸체와꼬리,양쪽날개등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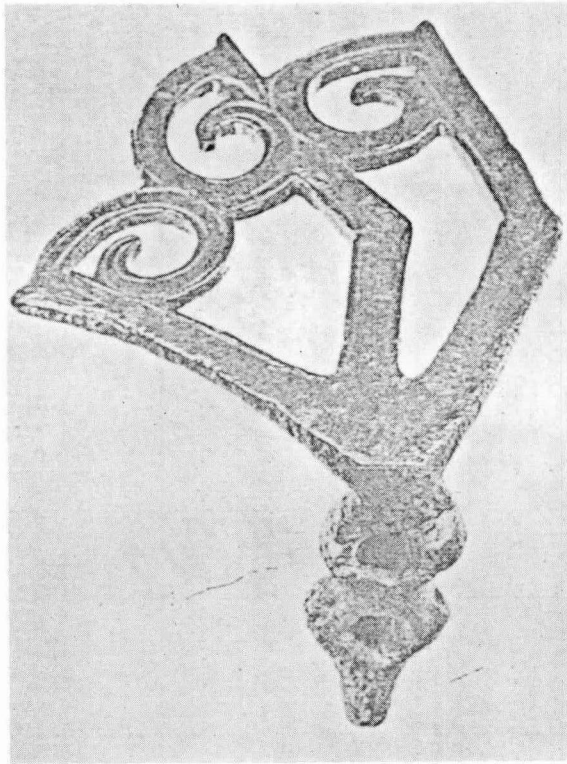


圖 5. 樣式化鳥足 (스키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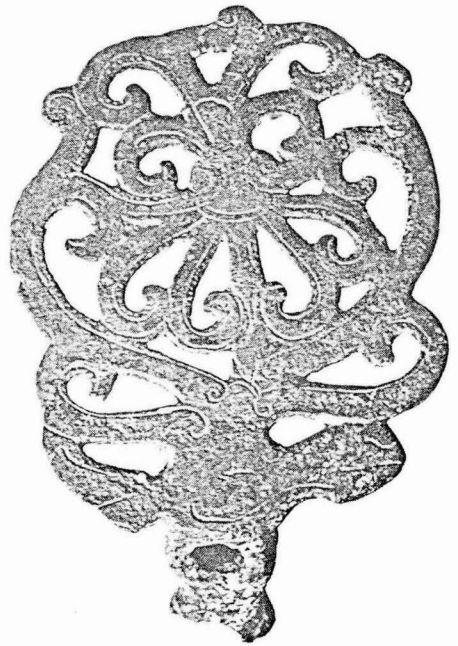


圖 4. 樣式化鹿頭 (스키타이)

로 나뉘는데 날개는 한쪽의 殘欠만 남아 투조의 일부만 알수가 있다. 몸체는 아래가 축뿔한 杏葉形이며 外形에 平行한 內帶가 있어 투조무늬는 內·外二區로 區分이 된다. 內區上部에는 한개의 龍頭가 있고 그 아래로 渦雲 또는 怪雲化한 肢體部가 전개되고 있다. 外區에도 上部에 한개의 龍頭로 볼 수 있는 무늬가 있고 그 아래로는 垂直線을 두어 左右로 兩分하였으므로 그 下端에 三角形꼬리가 달려 있다. 三角꼬리는 中心에 線을 두지는 않았으나 上部에 파르멧狀의 結束部를 두고 바로 그 양편에 몸체外區의 龍頭와 비슷한 한개씩의 龍頭를 內向으로 두고 그 아래로 怪雲狀 肢體를 展開하였다. 몸체에서와 같이 左右가 對稱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없어진 날개의 무늬도 對稱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圖 6. 金銅透彫鳥形佩飾 (天馬塚)

명이 필요치 않거나와 다만 中心部의 兩分垂直線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金冠塚 것은 中心線이 三段의 三葉과 르멧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三葉과 르멧은 葉端이 뾰족하여 잎사귀 모양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인데 이렇게 分明한 三葉과 르멧은 같은 金冠塚出土의 透彫 魚形佩飾(도8)에서도 볼 수 있다. 魚形의 中間腹部는 欠失되어 알 수 없으나 尾部에 한개의 分明한 三葉과 르멧이 있고 아가미直下에 또한 개가 보이거나 아가미의 것은 가운데 잎사귀의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天馬塚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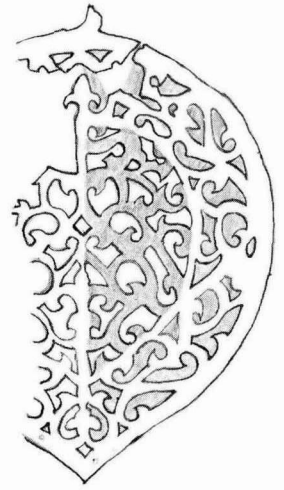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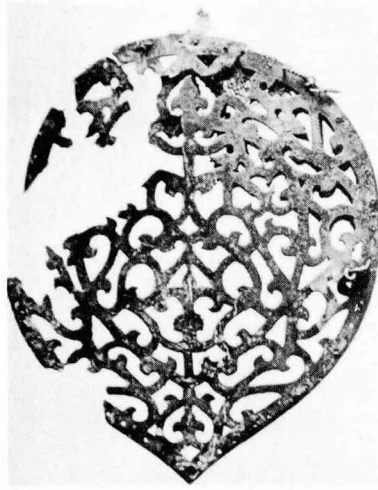


圖 7. 金銅透彫杏葉形佩飾 (金冠塚)

金冠塚의 杏葉形 透彫佩飾(도 7)은 鳥形으로 꾸며진 것은 아니나 天馬塚 鳥形佩飾의 몸체部分과 外形이 똑같다. 그런데 杏葉形 外形은 아니라 中心線에서 垂直으로 兩分된 점, 무늬가 內·外區로 나뉘어 점, 그리고 內·外區 龍頭의 按配와 모습, 方向, 怪雲文의 展開 등이 모두 天馬塚의 그것과 거의 一致한다. 따라서 무늬의 구성에 대하여는 설

그런데 이 金冠塚杏葉形佩飾의 中心과 르멧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곧 과르멧의 原形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天馬塚鳥形佩飾의 三葉과 르멧은 그 樣式이 原形으로부터 退化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天馬塚의 경우 다른 銀製鍔帶의 心葉中에 三葉과 르멧이 보이지만 그 中葉이 지나치게 커서 역시 典型的인 것에서 退化되고 있다는 인상이고 또 金銀裝心葉形杏葉內의 忍冬文이 基本形은 三葉이지만 中葉이 中空의 杏葉狀이어서 과르멧의 原形으로부터 한걸음 변화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의 과르멧으로 보인다. 이 발전된 과르멧은 中葉이 다시 변화해서 단순한 中空의 杏葉形이 아니라 左右二葉에 接한部分의 中葉이 二葉사이에서 돌아나는 기본구조를 버리고 二葉과 대등하게 內曲葉端으로 갈라지게 된다. 즉 다시 한번 변화를 보인 과르멧이라고 믿어지는 데 이에 이르러면 一見 과르멧이 아니라고 할만큼 原形과 르멧과는 다른 새로운 樣式이 된다고 하겠다.

如上的 三葉과 르멧의 변화로 본다면 金冠塚과 르멧이 年代的으로 天馬塚과 르멧보다 多少先行하는 樣式이 아닌가 짐작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金冠塚의 杏葉形透彫文, 天馬塚鳥形垂直의 몸체인 杏葉形투주무늬의 按配, 구성法이 同一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무늬가 아닌 만치 어느 한편이 다른 한쪽의 先行本 구조를 하고 後來의 투주는 그 本(본)에 의해 模寫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그 先後관계에 가령 數十年의 차이를 둔다고 假定했을 때 本의 存在나 傳承관계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天馬塚의 透彫裝飾品中에 鳥翼形透彫冠飾(도9)은 이미 金冠塚에서도 同形의 것이 나온 만큼 初有의 것은 아니나 그 全面에 베풀어진 透彫文은 역시 物形을 거의 완벽하게 벗어난 一種 怪雲文(?)으로서 주목이 된다. 前出 同墳伴出의 鳥形垂飾에 龍頭가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 用途와 機能에 상응해서 다르게 案出된 것으로 짐작된다.

伽耶地域인 高靈의 古衙洞古墳出土로 傳해지는 金銅透彫鞍具(도10)는 前輪·後輪의 무늬가 거의 完璧하게 保存된 예로서 아직은 他에 類例가



圖 9. 金製鳥翼形冠飾 部分 (天馬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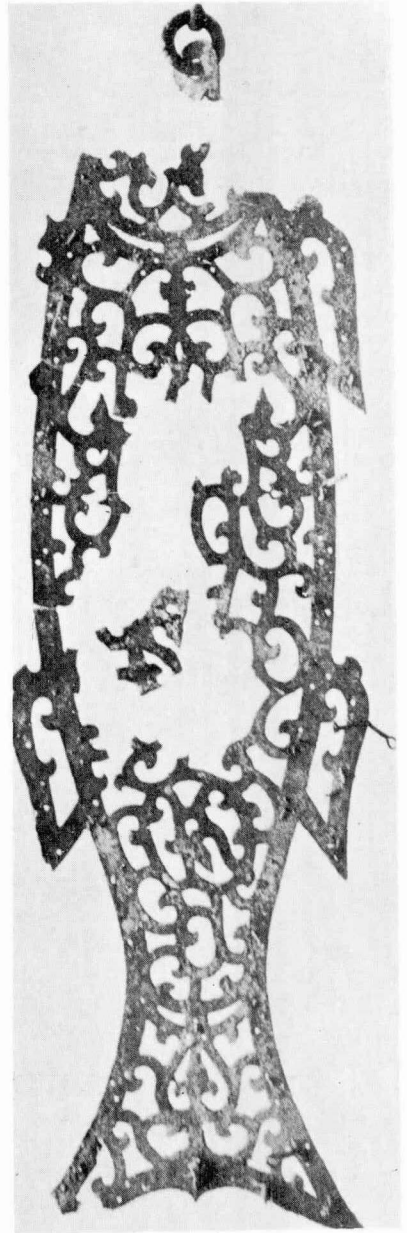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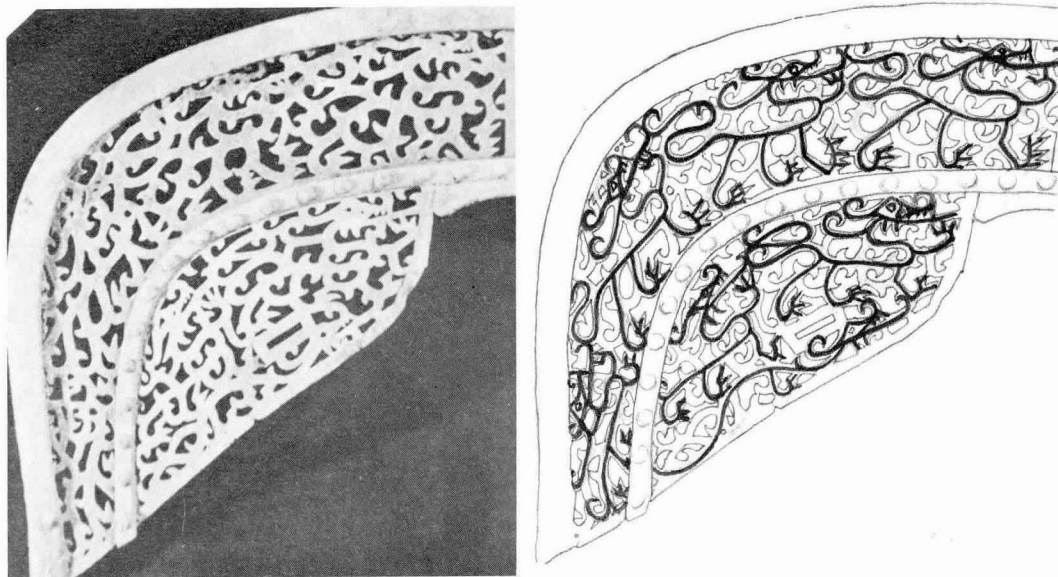


圖 8. 金銅透彫魚形佩飾 (金冠塚)

없는完好品이다. 그 무늬가 左右相稱으로展開되어 있음은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은데 그 규격이 보다 작고 무늬의 保存이 완벽한 前輪에서 龍頭로 짐작되는 몇개의 部位를 基點으로 龍形에 따른 肢體를 연결해 본 결과 全體의 切半(左半部)에서 대략 六개의 龍形이 描出된다. 이러한 무늬의 構成은 透彫의 全面에 雲氣化——蔓草化의 취향이 混入되어 있을지라도 太細의 差異가 없는 一定한 曲線의 運用으로서 龍形의 特性을 最少限度로 表出하고 있는 例라 하겠다. 이렇게 要約된 龍形의 表現은 앞에 例舉한 天馬塚의 金銅透彫鳥形佩飾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前出 金冠塚의 透彫杏葉垂飾과 金銅透彫三角板飾(도 11) 그리고 瑞鳳塚의 金銅透彫腰帶主形飾(도 1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熊本縣玉名郡江田村船山古墳出土의 冠帽殘欠(도 13)에 대하여 原田淑人氏は「金銅製이며 全面에 透彫文樣을 베풀었는데 그 모양이 囊狀을 이루어 前記



도판 10. 金銅透彫鞍金具部分(傳高靈出土)

의 古新羅나 伽倻의 그것과 酷似하며 다른 伴出物에도 類似點이 많은 것이 認定되어 或은 墓內의 主人公이 新羅人이거나 伽倻人이 아닐까 想像케 한다」고 하였다.

이와 同形の 冠帽은 金銅製外에도 樺皮製로서도 梁山夫婦塚外에 新羅·伽倻의 故地에서 殘欠로나마 多數·發見되었으며 그것은 또 冠帽의 前面에 鳥羽形前立飾을 꽃게품 만들어졌고 그와같은 鳥羽形前立飾구조가 있는 冠帽가 高句麗에도 있었음을 平南大同郡柴足面短馬塚의 人物畫에서도 짐작케 한다. 怪雲文이 帽部 全面에 透彫된 船山古墳의 이 冠帽은 全面 투조라는 점에서 天馬塚出土의 金帽(도14)와 相通하나 天馬塚의 것은 투조무늬가 T形, 斜格子形, 眼象形등 단순치 않고 怪雲文狀은 中心一部分에만 있다.

그것은 帽의 前面에 따로 附着된 山形透彫金板인데 同報告書에도 怪雲文으로 說明되어 있다. 아무튼 兩者가 모두 怪雲狀 또는 蔓草狀인 점에서는 內容이 어느정도 相通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船山古墳의 것은 論考의 挿圖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帽面의 全面에 怪雲狀透彫라는 初有의 異彩로운 것이며 더우기 原田氏는 다른 伴出物들도 韓土의 것과 類似點이 많기 때문에 墓主가 新羅人이나 伽倻人이 아닐까 의심하여 그 관계의 密接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異彩로운 冠帽의 例는 梅原末治氏가 出土地不明의 것으로 紹介한 것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 金銅冠(도15)은 二次大戰이 끝나기 전까지 서울에 居住하던 日本人蒐集家 伊藤慎雄이 所有하던 것인데 梅原氏는 「그 作은 慶州瑞鳳塚出土 金冠의 그것과 同様하다. 但 이冠에서 注意를 끄는 것은 그중 幅 4cm 되는 周緣의 帶가 切金の 透彫라는 사실이다. 이 透彫는 원래 「龍形」에서 脫化한 전혀 渦雲化의 것으로서 各其의 先端은 잘 꼬부라져서 섬세한 趣態를 보이는 것이다. 위의 透彫文은 有名한 慶州 金冠塚 金冠의 鳥帽子와 近似한 冠帽에 表現되고 있는 것과 同系의 文樣인바 그에 比한다면 形式化와 變化한 것이 눈에 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어느정도 抽象化한 무늬에 대하여 梅原氏는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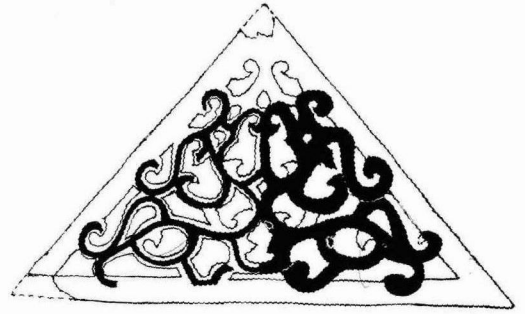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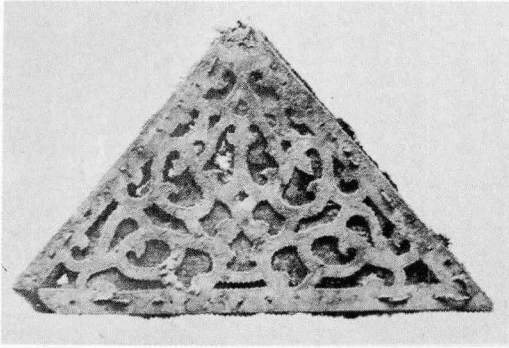


圖 11. 金銅透彫三角板飾〈金冠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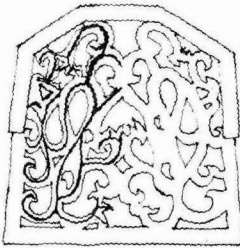


圖 12. 金銅透彫腰帶圭形飾〈瑞鳳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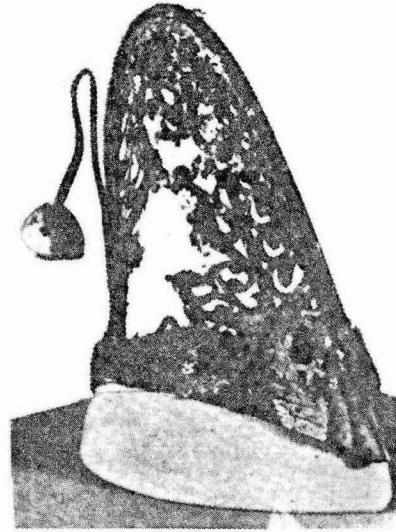


圖 13. 金銅透彫冠帽〈熊本船山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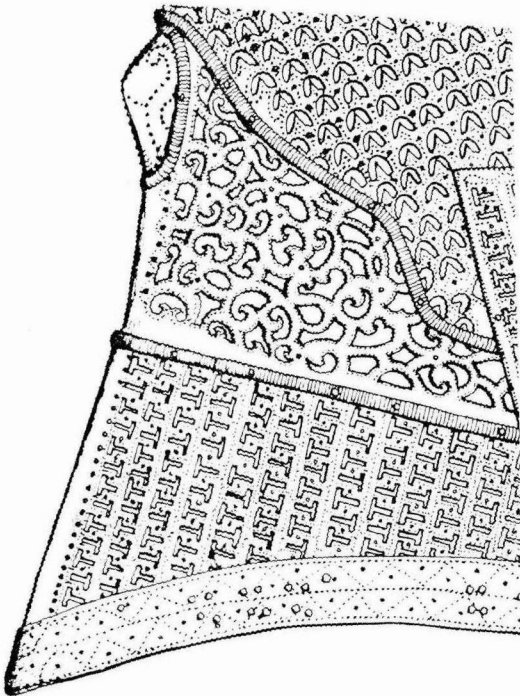


圖 14. 透彫金帽部分〈天馬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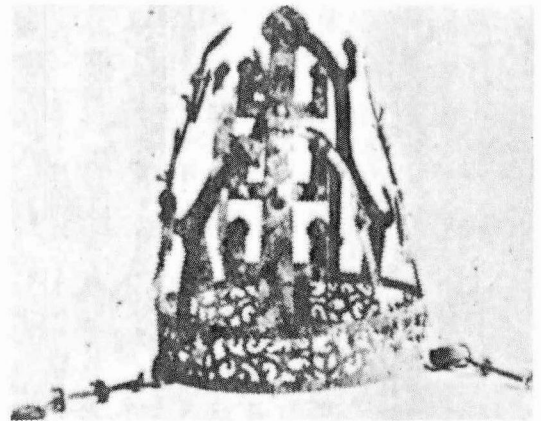


圖 15. 金銅冠〈出土地不明，在日本〉

「渦雲化한 것」이라 하였지만 具體的인 物形이 그와 같은 蔓形文으로 변  
화한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唐草文 또는 그에 영향된 동물무늬의 東漸  
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漢代에 盛行한 動物雲氣文의 文樣의 성  
격도 대개 그러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그 金銅冠의 띠에 투조된 무늬와 매우 비슷하게 相應되는 例로서는 大邱  
達西 第五號墳出土의 金銅透彫金具(도16)를 들 수 있겠고 日本의 경우  
에도 大阪丸山古墳 出土의 金銅透彫金具(도17)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龍文에서의 脫化와 抽象的蔓狀文으로의 轉化는 中國——한  
국——日本에서 매우 廣範하게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大阪丸山  
古墳 金具의 경우는 그 全形의 윤곽이 完存하고 一見 그 形式은 高靈  
古衙洞壁畫古墳出土로 傳해지는 金銅透彫鞍金具와도 近似하나 그 운두  
가 多少 높고 무늬의 抽象化가 보다 深化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즉 龍  
頭의 形狀表出에 있어서 보다 寫實性을 벗어나 가카스로 頭部로 認知될  
정도로 硬化되어 있고 足爪에 있어서도 高靈것에서 보이는 簡略하나마  
銳利한 三角爪端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鞍金具의 透彫무늬는 輪部의 中心部를 그어 左右로 兩分하  
면 그 무늬는 매우 複雜하지만 左右가 對稱으로 똑같이 展開되고 있을  
도 알 수 있다.

이러한 左右相稱의 무늬는 草稿作成이 어느편이건 한쪽만으로 足할 것  
이고 그것을 一時에 두장으로 떠서 펼치면 相互 똑같은 무늬가 이루어  
지는 一種 剪紙의 技法을 응용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相稱的 투조  
무늬의 構成은 아주 간단한 鈔帶金具(도18)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左右均齊 아닌 透作무늬로는 金冠塚出土 金銅透彫腰佩  
飾(도19, 20)과 眞坡里一號墳出土 金銅透彫金具(도21)를 들 수가 있다.  
金冠塚의 것은 物形에서 脫化한 느낌이 濃厚하나 그것을 具體的으로 풀  
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眞坡里의 것은 三足鳥와 鳳과 前後雙龍이 分明  
하고 그에 따른 유려한 雲氣文이 나부끼는 形狀이므로 硬化된 무늬와는  
달라 별다른 풀이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龍形의 文樣化는 帶金具와 鈔帶金具(垂飾)에서도 볼 수 있다. 中國廣  
州市西郊 晉代古墳(三二四年頃?)에서 出土된 帶金具(도22)는 龍形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彫出되어 몸체가 굵고 四脚과 足爪가 알기 쉽게 표  
현되어 있다. 그 足部의 날카로운 三角形발톱은 우리의 高靈古衙洞古墳  
의 透彫鞍金具에 보이는 龍文과 똑같다. 그런데 이 龍頭의 前方에는 앞  
가슴과 앞다리에 두발을 붙치고 나래를 편 큰 새 한마리가 새겨져 있어  
龍文帶金具로서는 異彩로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과대는 東晉 明  
帝 때인 「大寧二年」의 銘이 있는 博과 伴出하여 대개 서기 三二四년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는 없지만 龍이 이러한 스타일을 보이는 鈔帶  
金具(中國出土)(도23)가 있는데 이것은 머리와 치켜올린 꼬리부분에서  
더욱 寫實味를 보이는 예이다.

日本堺市七觀古墳의 鈔帶(도24)는 간단한 忍冬文이 있는 垂飾이 함께  
있는 鈔板인데 그 안에 한마리의 龍을 彫出하였다. 이것은 圓形 또는  
C形曲線이 복잡하게 구성된 것으로서 鈔帶中에는 어느 것보다도 圖案  
化가 深化된 예이다. 머리와 몸체와 다리, 꼬리, 뿔等 各部에 굵고 가  
는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鞍金具의 透彫法에 한걸음 가  
까워진 것이라 하겠다.

이와 유사한 鈔帶는 愛知縣額田靑塚의 것(五·六세기)과 熊本縣江田  
町船山古墳의 것(五세기 중엽)이 있는데 靑塚의 것은 龍이 목을 뒤로  
돌린 모습이고 船山의 것은 圓形으로 응크린 몸체 가운데에 머리를 돌  
린 모양이어서 제가끔 形狀의 특색과 文樣의 妙를 살리고 있다.

禽鳥唐草무늬의 透彫는 壺杆塚出土의 鞍橋前輪飾金具에서 볼 수 있고  
武寧王陵出土의 金銅飾履에서도 볼 수 있다. 壺杆塚金具(도25)는 片面  
에 봉황으로 보이는 날은 새 한쌍과 그 地文으로 유려한 唐草무늬를  
채웠다. 몸체와 날개, 꼬리에 毛彫가 있는 봉황은 유례없이 悠然하며  
그 喚友하는 態態는 造形的 極致라 하겠다. 武寧王陵飾履(도26)는 滿面  
에 龜甲文을 채우고 그 안에 한마리씩의 鳳凰을 되풀이 채웠으며 날개  
와 꼬리의 끝은 蔓狀으로 多少 굴리고 있다.



圖 16. 金銅透彫金具  
〈大邱達西第55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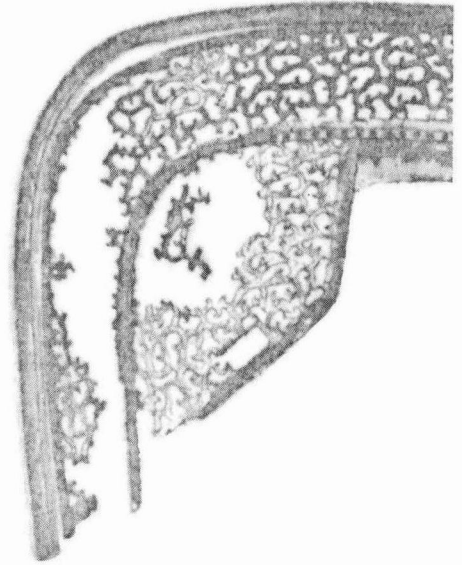


圖 17. 金銅透彫鞍金具 部分 〈大阪丸山古墳〉



圖 20. 金銅透彫腰佩飾. 〈金冠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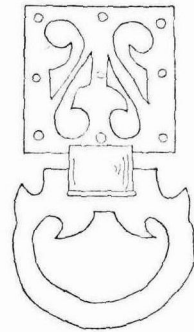


圖 18. 銜帶金具 〈皇吾里14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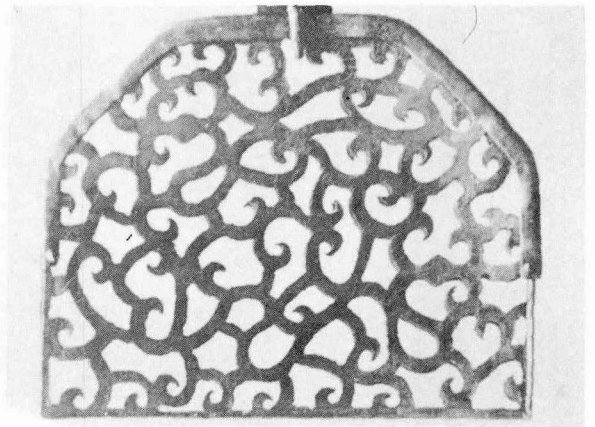


圖 19. 金銅透彫圭形腰佩飾 金冠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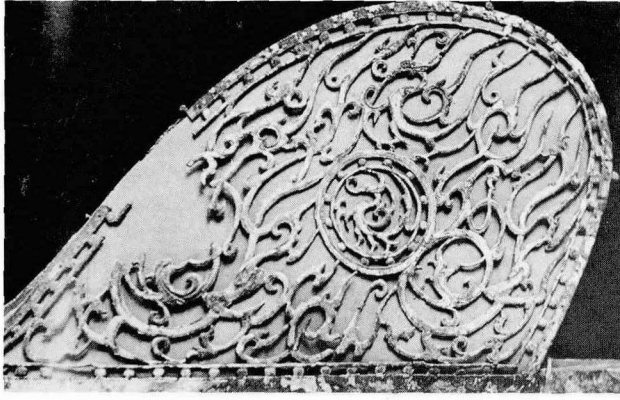


圖 21. 金銅透彫金具 眞坡里 1 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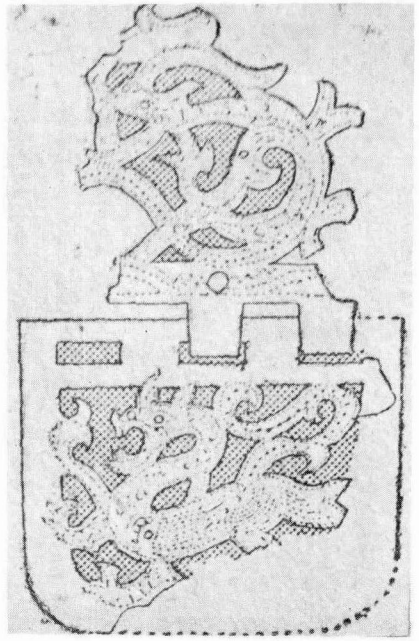


圖 23. 鍔帶金具 中國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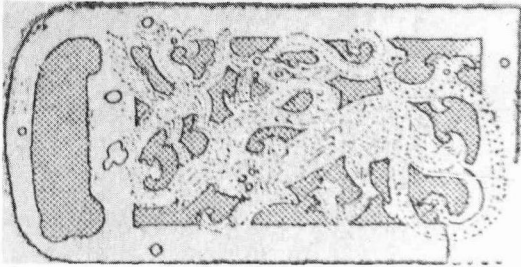


圖 22. 帶金具〈晋代墳 324 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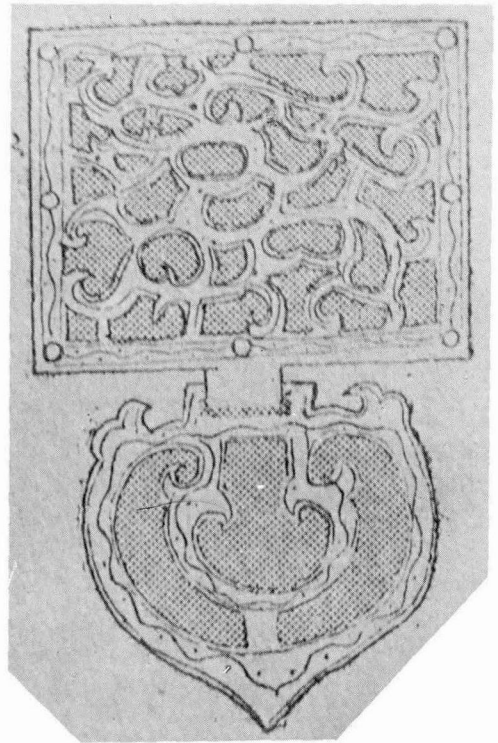


圖 25. 透彫鞍金具 壺杆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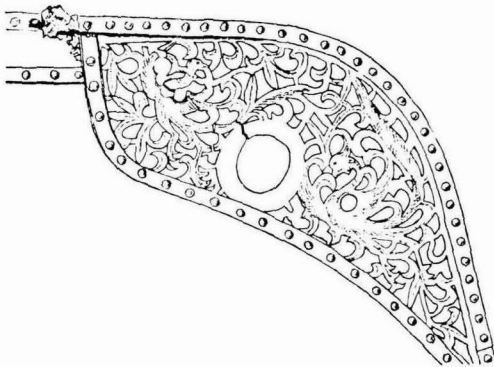


圖 24. 鍔帶〈堺市 七觀古墳〉

動物素材의 文樣化——樣式化的 傾向을 띤 裝飾무늬는 멀리 알타이산  
地の 「바지리크古墳」⑦이나 「노인·우라古墳」⑧ 등의 出土品을 通해서  
도 이미 알려져 있다.

바지리크 古墳出土의 壁飾虎首文(도27)과 木棺蓋飾革製雙禽透文(도  
28)、或은 노인·우라古墳出土의 雙龍透彫佩玉(도29) 등은 그러한 例이  
거니와 그것이 韓土의 金屬透文과 달라서 織文、革刻、玉刻 등으로 만들  
어진 것이지만 그 表現法의 曲線化、局部의 彎曲化 등 一面에서는 이미  
그리이스唐草文의 表現으로 기운 흔적을 보이게 된다. 노인·우라의 雙  
龍透彫佩玉과 같은 것은 그 素材가 中國의 인 것이고 그것이 漢玉 그대로  
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內包되어 있긴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動物을 素材로 한 蔓文의 透刻方式은 이미 漢以前에 受容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相互 交步의 흔적을 짐작하는데 重要な 몫을 한다고 하겠다.  
虎首의 側面觀이 가장 特性있게 表出된 점、雙禽이 對稱을 이루며 表出  
된 彎曲線의 調和있는 構成은 充分히 唐草무늬의 樣式的 영향을 받았다  
는 점에서 間接的으로는 韓土의 唐草무늬와 無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스키타이와 이에 인접했던 遊牧民들의 動物무늬의 그러한 手工樣式은  
앞에서 본 鹿頭와 鳥足等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들 北方遊牧民들  
의 動物的裝飾素材는 소위 「動物意匠」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特性  
이 強烈的 것으로서 農耕民의 그것과는 區別되고 있다. 이들의 居住地  
는 스키타이族이 살던 黑海北岸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種族도 스키타  
이族과는 다른 漢書에 보이는 「月氏」(알타이山地) 또는 「丁零」(미누신  
스크低地帶)으로 區別되고 있다.

그러한 동물 意匠의 分布는 韓半島에서 비교적 가까운 遼寧省에서도  
靑銅透彫二牛飾牌(도30)같은 것이 발견되므로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  
二牛의 彫法은 스키타이의 그리폰刻法을 연상하리만큼 迫眞感이 있다.  
韓土안에서는 透彫는 아니나 永川에서 발견된 虎形帶鉤、馬形帶鉤 鹿頭  
등 그 表現의 濃度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北方的動物意匠의 영향

이 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면 동물들 소재로 한 투조법은 古新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  
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신라는 墳內 副葬의 溫存에 의해 많은 透作들이  
出現한 셈이나 도굴이 심했던 고구려, 百濟, 伽倻의 경우는 그렇지 못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眞坡里一號墳의 透彫金具、百濟는 武寧王  
陵의 飾履、伽倻는 高靈古衙洞의 鞍金具 등으로서 생각하면 원래는 그  
方面의 풍부한 所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龍形과 그것에  
서의 脫化라는 樣式的 변화가 中國六朝時代와 그리고 고구려, 百濟, 신  
라, 伽倻의 四國이 共通的으로 생기고 있어 그 傳播經路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傳播의 흔적은 龍形의 脫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忍冬唐草무늬  
의 경우에도 똑같이 찾아 볼 수가 있다.

### 三、忍冬唐草文과의 關係

위에서 본 古新羅와 그 隣接國들의 龍形에서 脫化한 怪雲化、渦雲化  
무늬는 그 意匠自體의 스타일이 발달된 唐草무늬와 有關한듯이 보인다.  
앞서 스키타이를 비롯한 北方遊牧民의 動物意匠도 그리이스의 忍冬唐草  
무늬의 영향에 의해 肢體彎曲化 傾向이 있었음을 보았지만 龍形의 경우  
龍形自體가 彎曲化무늬로 변할 만큼 忍冬·唐草무늬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이 연장반복되어 생기는 복잡한 渦文도 忍冬·唐草의 인 것일 수가  
있지않을까 한다. 그러한 忍冬·唐草무늬의 透彫效果는 寫實的인 경우  
나 渦文과 같이 抽象的인 경우에도 무늬의 구성에 따라 매우 異彩롭고  
유려한 것이어서 馬具의 杏葉에 이르기까지 그 技法이 이용되었던 것이  
다. 龍形과의 結合이 아닌 忍冬·唐草무늬 自體만으로도 樣式上 많은 변  
화가 있었던 것은 手工品이나 畫蹟따위 많은 資料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忍冬·唐草무늬의 蔓莖을 최대한 渦文化한 例를 戰國時代 漆器彩畫  
(도2)⑨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資料는 그 만들어진 時期를 감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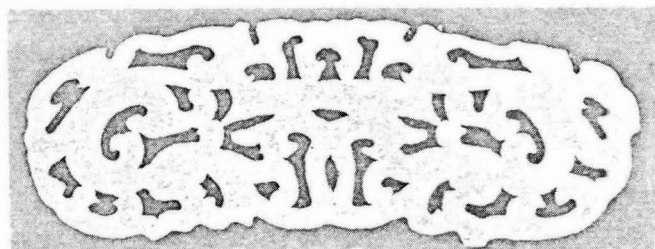


圖 29. 雙龍透彫佩玉〈노인·우라古墳〉



圖 26. 透彫飾履 一部〈武寧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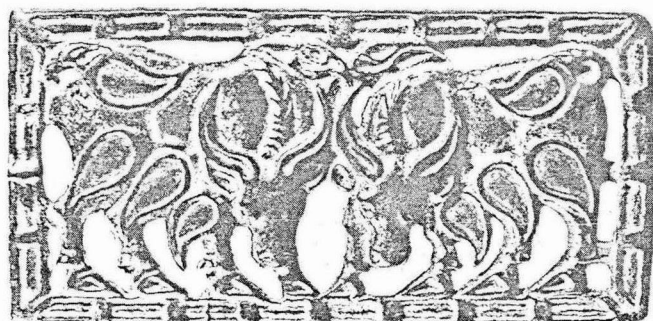


圖 30. 青銅透彫二牛飾牌〈遼寧省〉



圖 31. 銅製鍍 〈스키타이, 南러시아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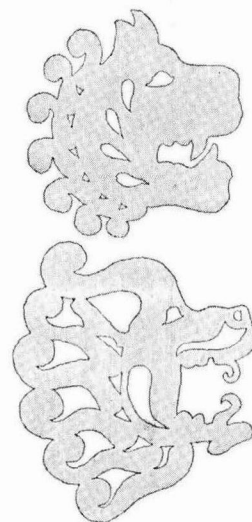


圖 27. 壁飾虎首文〈바지리크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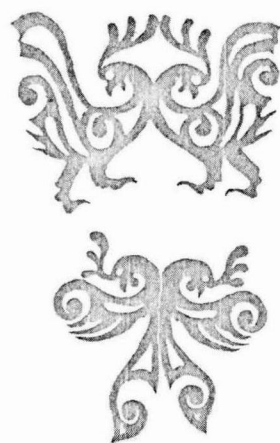


圖 28. 革製雙禽透文〈바지리크古墳〉

다면 北方으로 부터의 受容初期에 해당하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즉 戰國時代에 이미 저와 같은 활발한 당초무늬가 실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확실한 동시에 다음에 오는 漢代의 그것과 연결지어지는 架橋的 구실을 한다는 점에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漢代의 植物文에 대하여 梅原氏は「本來 植物무늬가 中國에 있어 固有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以上 中國本土보다도 그것이 西方乃至 北方文物의 要素를 多分히 지닌 「노인·우라」의 遺物에 보다 顯著하다는 事實은 그 緣由基因하는 바를 짐작하는데 重要な 示唆을 주는 것이다 할 것이다. 대체로 黑海의 北岸에 變형한 이란系의 「스키타이」의 옛文物에 일찌기 그리이스文物이 浸潤한 것은 매우 著名한 事實이다. 植物文樣같은 것도 일찌기 受容되어 스키타이 特有한 銅容器를 비롯 온갖 裝飾文中에 驅使되고 그리하여 特殊한 本來의 動物文과 아울러 그 內容을 豊富히 한 것은 많은 實例가 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同文物의 東西에의 波及에 따라 西紀前三世紀頃에 中部시베리아에까지 다다른 例로서 一九二七年乃至 九年에 있었던 알타이地方의 古墳出土品이 그안에 中國의 古文物의 片影도 지닌 點으로써 들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 「그곳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馬具裝飾은 好例를 이루는 것이며 木製의 杏葉에서, 透革帶飾, 鞍飾透具에 各種 忍冬文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漢代의 植物文樣은 위의 北方에서 온 西方文物의 波及의 한 表現으로서 먼저 그 所産이 傳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使用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西方文物의 中國에 波及한 年代가 戰國時代로 소급된다는 점과 아울러 미루어 漢以前에 植物文이 일찍 中國에 傳해졌다고 想像케도 되는 것이다. 이들 當初에 傳해진 植物무늬의 性質은 자세치 않으나 노인·우라의 資料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리이스風의 특색있는 忍冬唐草文類가 그 一部를 차지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고⑩ 하여 漢代의 植物무늬가 일찌기 스키타이에서 들어 오고 紀元前三世紀頃에는 中部시베리아인 알타이地方에 도달되었고 植物文은 漢以前的의 中

國에 일찍 들어왔다고 하였다.

植物무늬가 그리이스로부터 스키타이에 들어와서는 그들 特有한 銅容器를 비롯한 여러 장식무늬에 이용되고 本來의 동물문과 아울러 內容을 풍부히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植物무늬가 많이 구사되었으나 本來의 動物무늬가 아울러 盛行된 점에서는 漢代의 中國이나 우리의 古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本格的인 動物무늬로 가득했던 스키타이에 受容된 植物무늬는 소위 스키타이식 銅容器로 불리는 銅製鍍(도 31)의 中間帶에 보이는 무늬이다. 그 잎사귀의 모양은 略化된 아칸사스와 같으며 각기 한개단위로 交互 上下向 配置되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S形蔓莖과 上下交互反復의 方法은 唐草무늬의 展開法과 같은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무늬는 보다 寫實風인 것도 포함해서 노인·우라古墳出土의 毛織物刺繡文(도 32)에도 보인다. 이밖에 노인·우라의 무늬로는 毛織縫合文、寫實風草花文(도 33)(그중에 下段의 것은 양귀비꽃으로 추정)이 있는데 그蔓莖의 모양은 唐草무늬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막연히는 일종의 花唐草무늬로 볼 수도 있겠다.

또 人物禽鳥刺繡文(도 34)에서는 童子인듯한 人物과 날개를 펼 큰새와 草文을 一列로 안배하고 그 上段에는 아칸사스와 같은 무늬를 일정한격으로 뒤어서 배치하였다. 노인·우라의 이들무늬는 앞에서 본 스키타이 銅鍍의 草文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무늬모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바지리크古墳⑦ 出土의 여러 透革鞍飾(도 35)과 透革帶狀飾(도 36)에서는 三葉과 르뻬트를 비롯한 각종 變形忍冬唐草무늬를 볼 수 있다. 여기의 鞍飾文은 가죽을 새긴 것으로서 우리 古代의 金銅製와는 거의一致하지 않는 忍冬唐草무늬들이지만 그 透彫技法인 점, 우리 古代鞍飾무늬의 龍形의 蔓狀脫化라는 根源의 條件에서 相通하며 따라서 우리 古代鞍飾의 發生과 樣式문제에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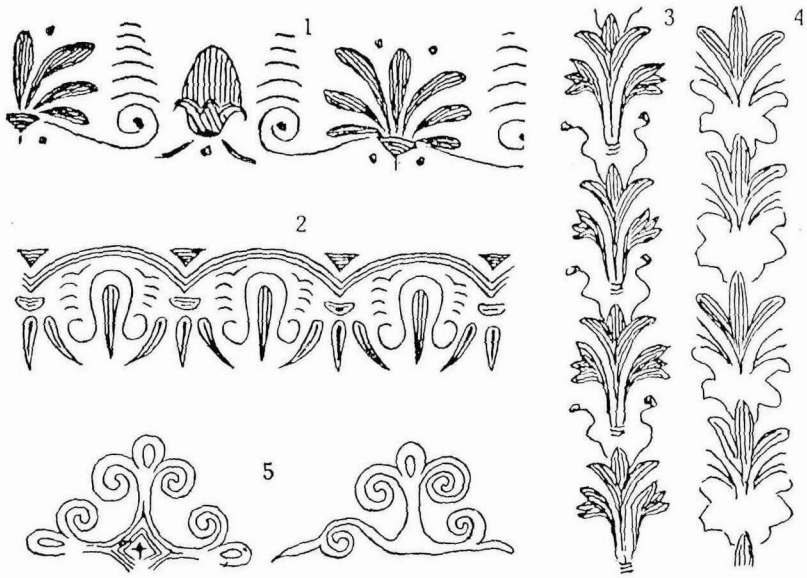


圖 32. 毛織物刺繡文〈노인·우라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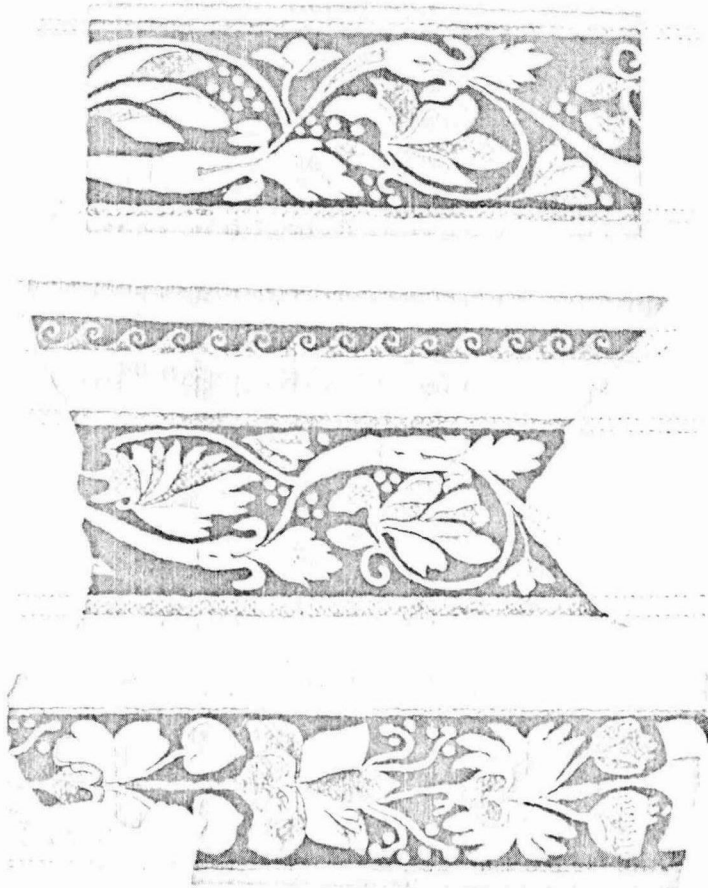


圖 33. 毛織縫合文〈노인·우라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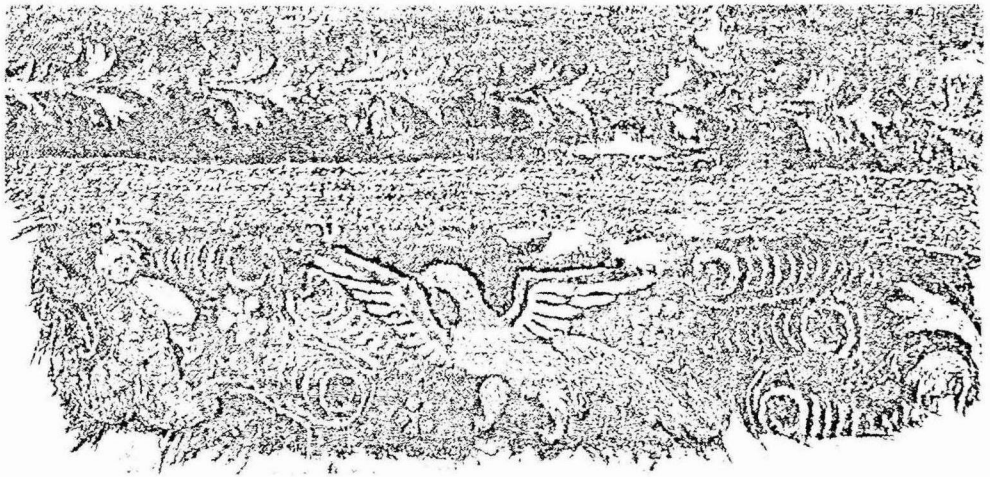


圖 34. 人物禽鳥刺繡文〈노인·우라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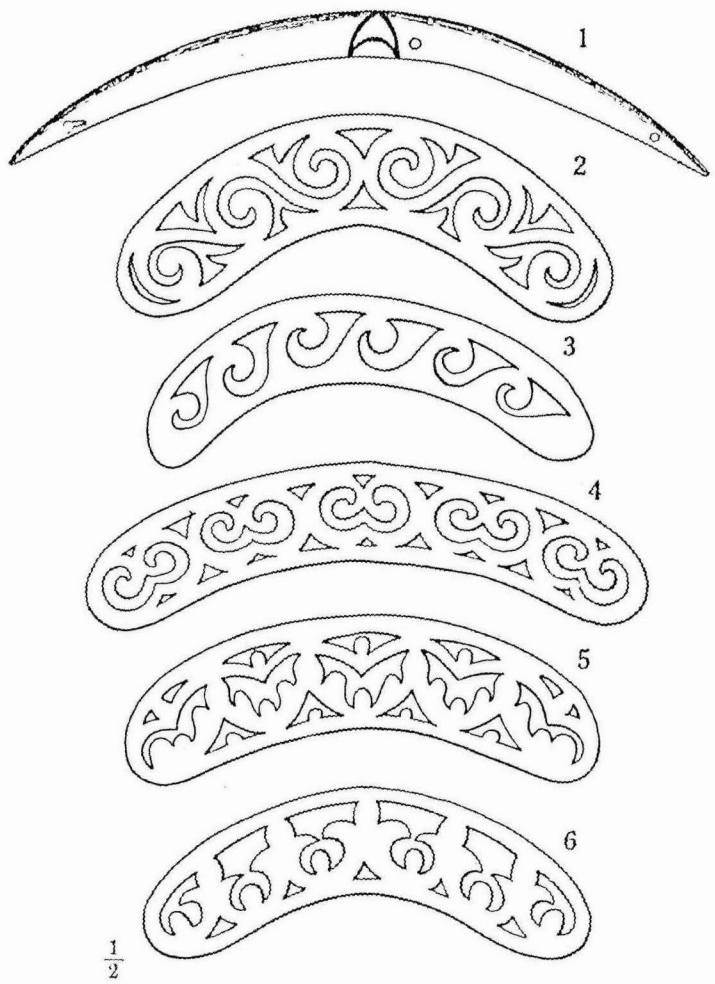


圖 35. 透革製鞍飾〈마지리크古墳〉(梅原, 古代北方系文物의 研究)

마지리크古墳出土例에서 뻔 수 없는 다른 한가지의 資料는 陪葬馬着裝에 관한 復原圖(그리야즈노프復原(도37)이다. 이것은 同古墳에서 발견된 馬具類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馬飾文에 忍冬무늬가 보이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우리古代的 馬裝에 적지않은 示唆를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忍冬唐草무늬의 傳播를 짐작케 하는 資料로서는 또 마지리크古墳에서 멀지않은 알타이의 시베古墳<sup>⑪</sup>出土의 장식무늬(도38)를 들 수 있다. 이들은 透彫가 아닌 平文、또는 沈彫에 의한 刀子柄、骨製品 장식무늬인데 梅原氏는 「일종의 唐草文을 沈彫하여 그리이스風の 忍冬文과의 관계를 엿보게 한다」<sup>⑫</sup>고 하였다.

위에서 본것처럼 戰國時代에 이미 中國에 唐草무늬가 들어온 흔적이 있고 漢代에도 그와 같은 風の 植物무늬가 있었던 것은 노인·우라의 中國的刺繡무늬로서도 짐작이 된다고 하겠다. 漢代에는 그러한 唐草文(도39)외에도 그에 영향된 것으로 보이는 怪雲文(도40)도 있는데 그 怪雲文은 우리 古代 특히 고구려古墳의 壁畫에도 적지않게 나타나는 類型이라 하겠다.

六朝의 忍冬唐草무늬는 鈐帶와 같은 金屬透飾에도 보이고 敦煌石窟의 壁畫같은 데에도 허다하게 나타난다.

華南東晉墓出土의 銅帶鈐飾(도41)은 우리 古代의 百濟의 銀製鈐帶飾(도42)과 같은 것이 밝혀졌으나<sup>⑬</sup> 그러한 草文이 아직 他地域에서는 發見되지 않고 있어 樣式的인 差異는 勿論 傳播經路에서도 示唆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敦煌二八五窟의 天井畫(도43)에는 百濟武寧王陵出土의 玉、王妃金製冠飾(도44)에 보이는 流麗한 草花意匠이 보이며 또 扶餘出土의 箱形鉢(도45)에 보이는 回轉唐草무늬、反浦面華上里 立石(도46)<sup>⑭</sup>에 보이는 回轉唐草무늬와 똑같은 무늬가 있다. 이러한 무늬는 眞坡里一號墳에서 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敦煌의 西魏時代壁畫에는 허다한 唐草무늬

(或은 蓮唐草무늬)가 등장하며 그것이 隋初唐으로 넘어가면 보다 花文의 요소가 짙은 당초무늬나 葡萄唐草무늬로 전환되어 간다. 六朝에서는 또 畫像塼(도47, 48)에도 둘째장식으로 唐草무늬、花唐草무늬가 이용되었으며 그開放의 무늬의 구성과 변화는 典雅流麗한 맛이 풍부하며 당초무늬의 盛行을 짐작케 한다.

天馬塚出土 白樺皮製障泥의 天馬圖四周에도 양식상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唐草化무늬가 그려져 있어 古新羅에서도 腰帶佩飾이나 鈐帶 등과 함께 忍冬唐草무늬가 盛行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高句麗壁畫(도49, 50, 51)에서 볼 수 있는 怪雲무늬도 傳播가 되어 장식무늬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 四、結 語

古新羅의 透作무늬는 대개 金、銀、銅바탕을 使用하였으며 一部の 怪雲狀무늬外에는 대체로 左·右相稱이 되게 하여 按配에 있어 剪紙法의 利用을 推定케 한다.

그 무늬는 龍形의 殘影을 보이는 一種 龍——雲文이 있으며 龍首의 寫實味는 경우에 따라 濃淡이 있다. 이것은 龍形에서의 脫化過程에 있는 무늬라고 하겠으나 未分化的 脫化現象이라 하겠다. 金冠塚의 寶珠形透彫垂飾과 三角板飾 瑞鳳塚의 圭形飾、天馬塚의 鳥形佩飾、그리고 伽耶地域의 高靈出土透彫鞍金具、日本大阪의 丸山古墳 鞍金具 등은 모두 이러한 部類에 든다. 그리고 龍形에서 原形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脫化되어 이른바 怪雲狀 또는 渦雲狀으로 變化한 部類가 있는데 이것은 本來 出發은 龍形이었던 만치 그 構成要因에서 龍的要素를 排除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우기 觀念的으로는 變形 龍文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金冠塚의 魚形佩飾、圭形腰佩、天馬塚의 金帽中心部、同鳥翼形冠飾、日本熊本船田古墳의 透彫冠帽가 대개 이런 部類이다. 금관총의 佩飾들은 무늬의 구성이 특히 怪異한 것으로 그것이 고구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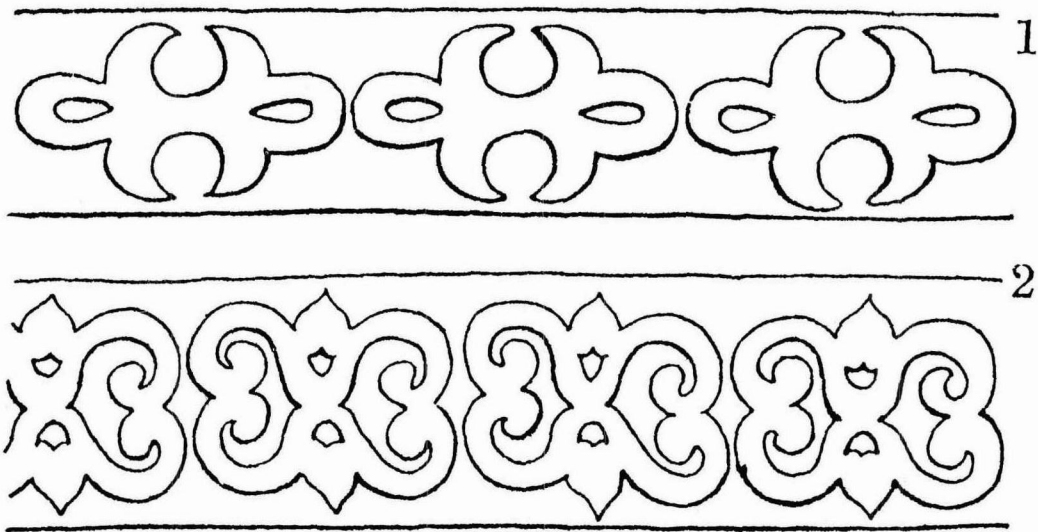


圖 36. 透革帶狀飾〈바지리크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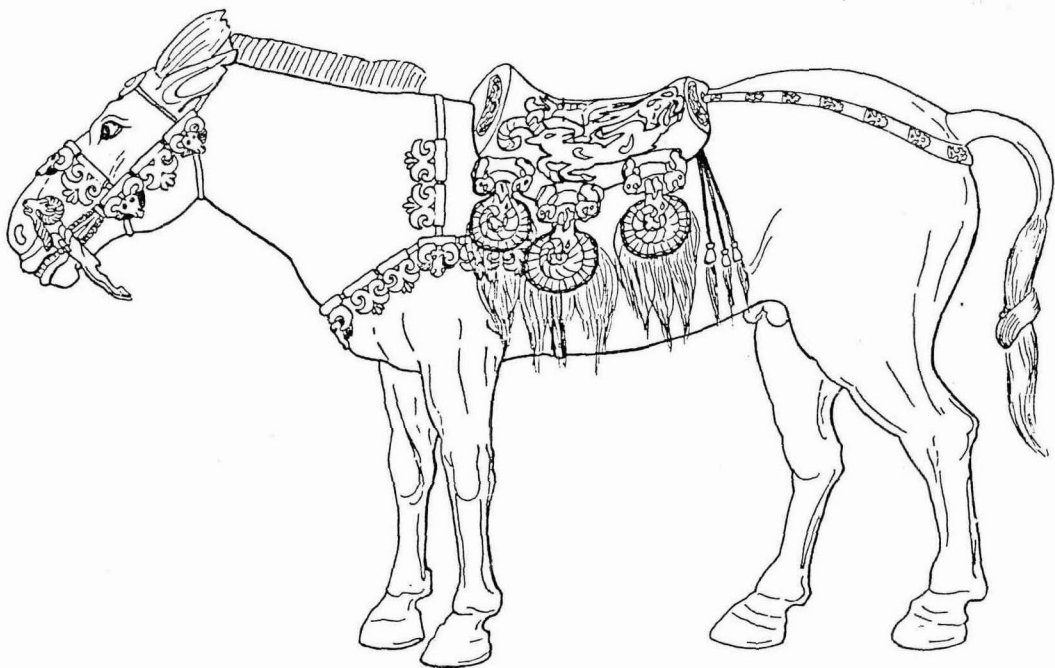


圖 37. 槲室外陪葬馬着裝圖〈바지리크古墳〉(그리아즈노프復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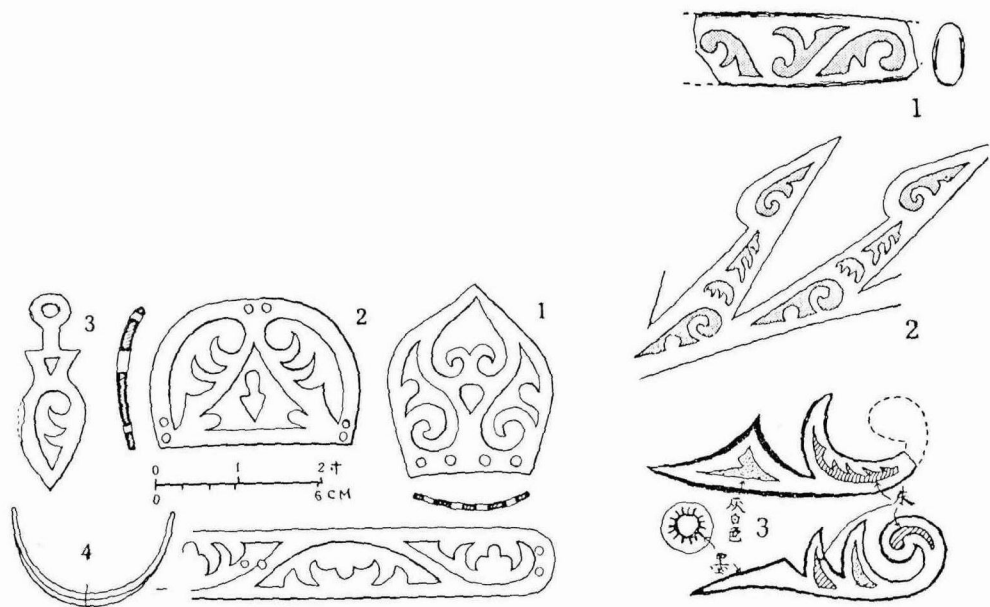


圖 38. 骨製飾文과 刀子柄飾文 〈시베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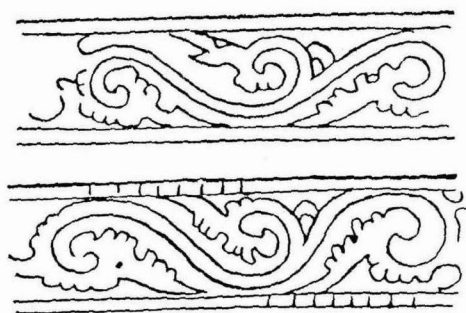


圖 40. 怪雲文 漢牙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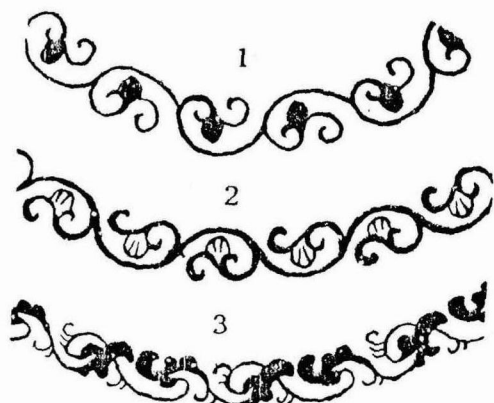


圖 39. 連續唐草文 漢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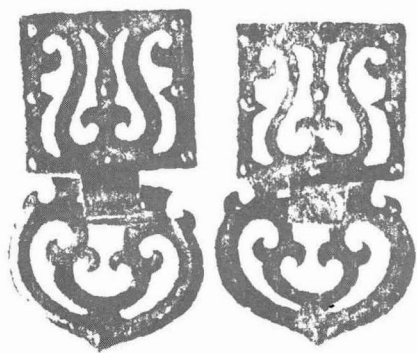


圖 42. 銀製銙帶裝飾 公州宋山里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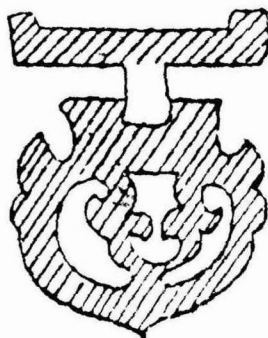


圖 41. 銅帶銙飾 東晉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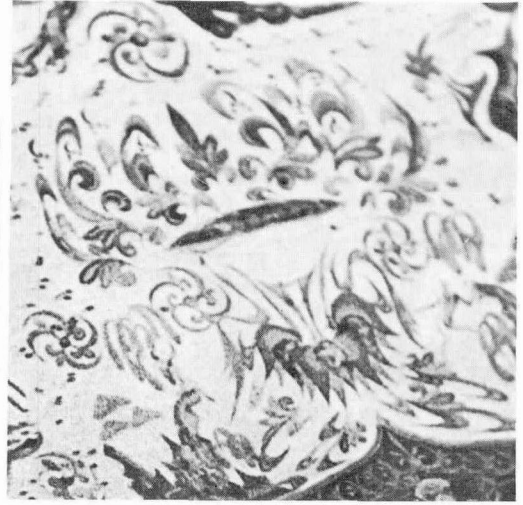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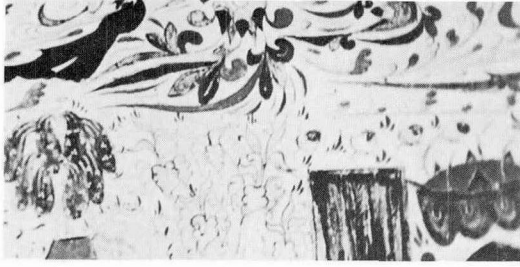


圖 43. 敦煌 285窟, 南壁, 天井畫 西魏



圖 45. 箱形碣石〈扶餘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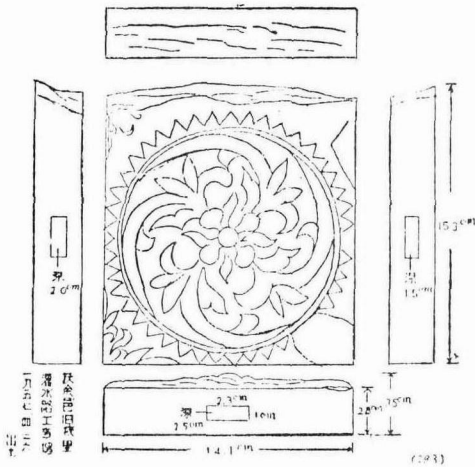


圖 46. 立石刻文〈反浦面華上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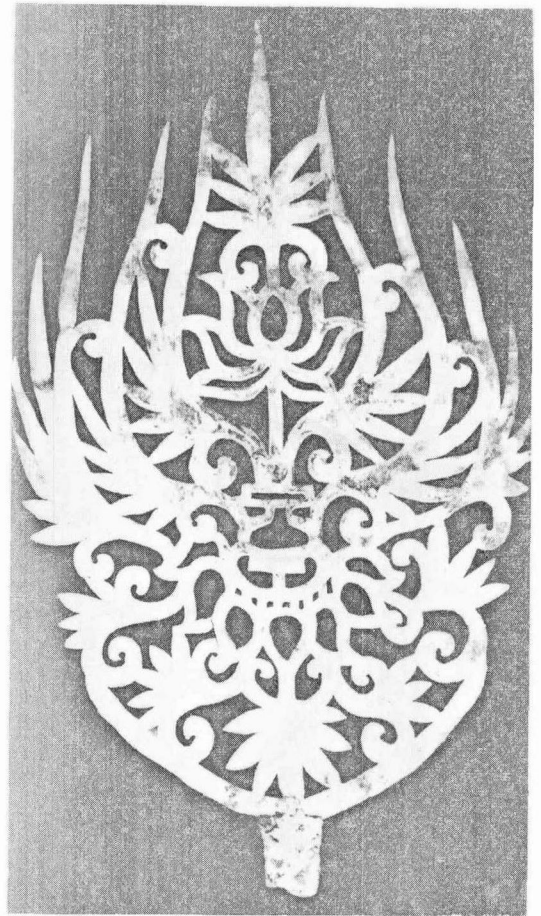


圖 44. 金製冠飾(王妃)〈武寧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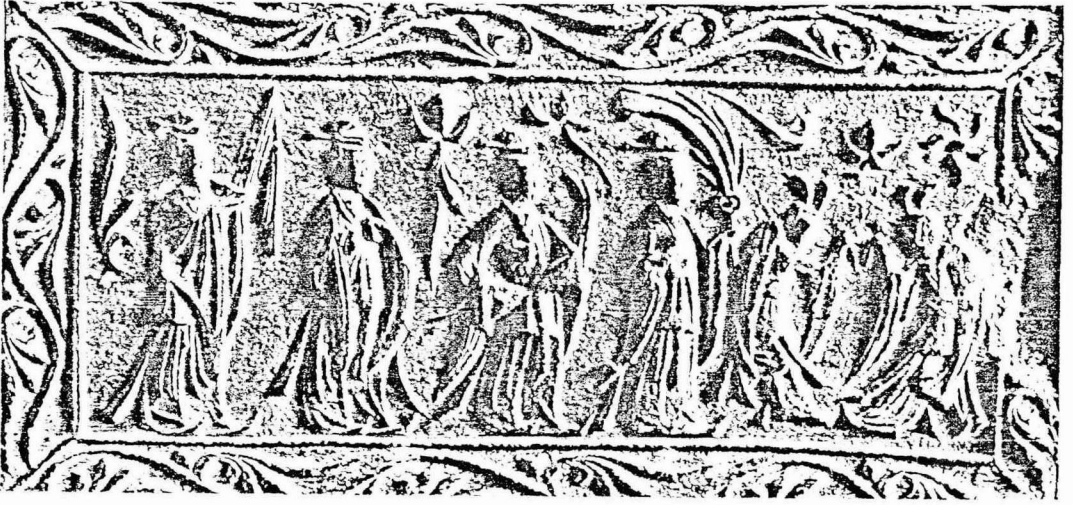


圖 47. 畫像磚〈六朝〉



圖 48. 畫像磚〈六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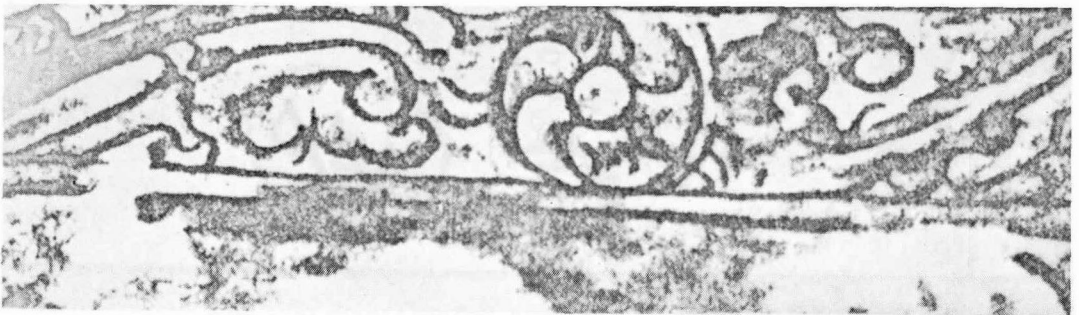


圖 49. 怪雲 大安里 1 號墳 前室人物圖上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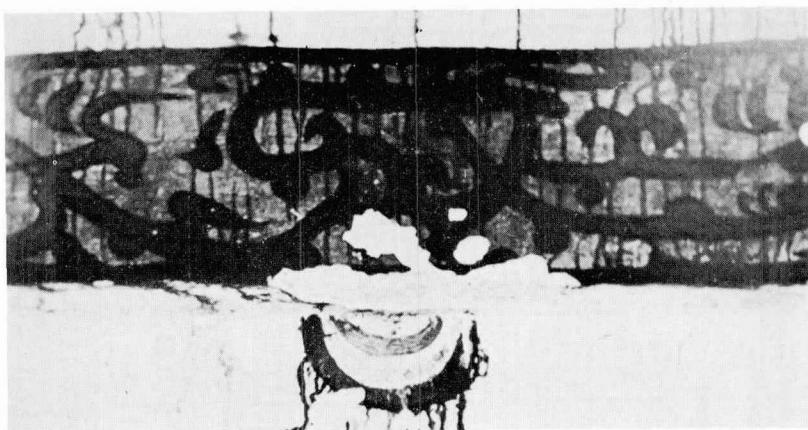


圖 50. 怪雲 環文塚玄室西北隅



圖 51. 怪雲 環文塚玄室西北隅 柱形圖

에 나타나는 怪雲文(大安里古墳, 環文塚等)과 밀접한 樣武 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植物무늬인 忍冬唐草무늬도 그것 自體로서의 透作的存在에 意義가 있으나 動物무늬 自體가 元來 西方그리스의 唐草무늬의 영향에 의해 蔓狀化의 傾向을 보이고 그것이 遊牧民 스키타이<sup>15)</sup>에서 發源하여 알타이——西域——中國을 거쳐 韓土에 도달하였던 만큼 忍冬唐草무늬는 動物形을 解體하는데 根源的으로 重要な 役割을 했음이 分明한것같다. 물론 唐草무늬는 그나름대로 變容발전되어 統一新羅에서처럼 多樣하고 화려한 流行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龍形의 脫化에 있어 그 무늬의 성질을 怪雲——渦雲으로 생각하고 草文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龍이 원래 雲氣를 수반하는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脫化의 무늬에 별다른 具體的인 形質이 加味되지 않은 것이라면 外形上 龍形을 상실한 무늬라도 本質上 龍文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古新羅期의 透作무늬는 素材에 있어서는 中國的인 것 또는 北方的인 것이 混淆되어 있으며 樣式에 있어서는 本源的으로는 北方的인 風이 농후하나 中國을 證유하였으리라는 것을 想起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佩飾 또는 鳥翼形과 같이 보다 北方的인 裝束의 영향이 짙은 점에 이르러서는 다른 經路의 傳播受容도 짐작된다고 할 수 있다.

(註)

- ① 梅原末治·漢代の植物文様に就いて(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一九三六)
- ② 「天馬塚」插圖 五八、P、一〇三
- ③ 「天馬塚」插圖 一〇九、P、一三三
- ④ 原田淑人·東亞古文化論考 P、一一二
- ⑤ 梅原末治·두개의 金銅冠(考古美術 八一—二)
- ⑥ 胡肇春「攷古學雜誌」創刊號, 民國二十一年.
- ⑦ 바지리크古墳·알타이의 바지리크(地名)에 있는 분묘, 一九三九年夏 發掘된. 海拔 一、五〇〇尺의 高地에 있고 二重木槨, 르멘코, 그리아스노프, 아

드리아노프 등이 발견, 통나무木棺, 紀元前三世紀? 馬具類圖案動物文優勢. 스키타이 風顯著, 又有汎 그리이스 風裝飾文.

- ⑧ 노인·우라古墳·在우란바르토北方, 匈奴單于 또는 貴族의 墓·紀元前後頃
- ⑨ 漆耳杯, 戰國時代, 湖南省長沙市左家公山 十五號墳
- ⑩ 梅原末治 漢代の植物模樣に就いて(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 ⑪ 시베古墳·바지리크隣近西北方 있는 古墳, 木槨積石塚(쿠르칸), 一九二七年 그리아즈노프, 코마로프 등이 發掘, 徑約 四五m, 高二m, 橫約 七m, 方形 邊長約 六m, 二重木槨, 紀元前後 一世紀頃?(漢盛時), 有漢風漆器片, 四葉座文(馬具).

- ⑫ 梅原末治 アルタイ地方に於ける 考古學的發見(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 ⑬ 金元龍, 華南東晉墓出土의 銅帶銜飾(考古美術 三一六)
- ⑭ 金永培, 公州反浦面上華里立石(考古美術 一九六二, 六)
- ⑮ 스키타이·紀元前七—二世紀頃 黑海北岸에 살던 近緣관계의 여러 種族. 그리스, 로마의 著作家들(가령 헤로도토스)에 의해 「스키타이」라 불리었음. 牧畜, 遊牧種族인 그들의 習俗과 文化에 관하여는 「헤로도토스」의 「歷史」(卷 4)에 詳細히 記錄된. 工藝에 있어서는 그들의 生活과 密接한 動物素村의 독특한 스타일, 即 「動物意匠」을 이룩함.